

Jesus' Teaching Methods Based on Parker Palmer's Concept of the Community of Truth

Hongjoo Kim¹, Kyongsun Lee², Jungui Choi^{3*}

^{1,2,3}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of Jesus' disciples in light of Parker J. Palmer's concept of a community of truth.

[Contents] The study first summarizes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diachronic perspectives on the concept of truth, then examines Palmer's thought to illustrate the educational contribution of a community of truth in evoking the dynamic interaction of truth-seeking beyond objective knowledge and the connection between knowledge and life. Building on Palmer's three elements of a community of truth - interconnectedness, personal knowledge, and educators - he then conceptually described five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 of truth: centered on the subject, welcoming conflict, seeking common experience, seeking openness, and seeking positive change. Then, the figure of Jesus as an educator and the figure of the community of disciples as a community of truth were outlined, and Jesus' community of disciples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five elements derived from Palmer's concept of a community of truth.

[Conclusions] Jesus used a theme-centered pedagogy to teach his disciples to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not just knowledg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kingdom of God. He taught his disciples to discover the paradoxes, unity, and hope hidden in contradictions, divisions, and hopeless situations, and he taught them to experience these conflicts communally. He taught his disciples to always be open to unfamiliar people, situations and topics, and to the transcendent truth of God. This community of disciples transformed the educational space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disciples themselves and society.

[Keywords] Palmer, Truth community, Jesus' teaching method, Subject-centered

* **Corresponding to** Jungui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 runnerchoi@catholic.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에서 본 예수의 교육 방법

김홍주¹, 이경선², 최준규^{3*}

^{1,2}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³가톨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파머(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community of truth) 개념에 비추어 본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진리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인 통시적 관점을 요약한 후, 파머의 사상을 검토하면서 객관적 지식을 넘어 진리 탐구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지식과 삶의 연결을 불러일으키는 진리 공동체의 교육적 기여를 설명하였다. 이어 파머의 진리 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인 상호 연결성, 인격적 지식, 교육자를 바탕으로 하여, 진리 공동체의 다섯 특징인 주제 중심, 갈등 환영,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에 관하여 개념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음, 교육자로서 예수의 모습, 진리 공동체로서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약술하였고,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에서 도출한 다섯 요소를 중심으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분석하였다.

[결론] 예수는 주제 중심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주제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비유와 기적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교육하였다. 또 예수는 제자들에게 모순, 분열, 절망적 상황 안에 숨겨진 역설, 일치, 희망을 발견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 환영의 경험을 공동체적 체험하도록 교육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이 낮은 존재와 상황과 주제에 대해 또 초월적 진리 곧 하느님에 대해 항상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교육했다. 이런 제자 공동체는 교육 공간을 변화시키고 제자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제어] 파커 파머, 진리 공동체, 예수의 교육 방법, 주제 중심, 갈등 환영, 개방성

I. 서론

오늘날 우리 교육의 자화상은 슬프기만 하다. 선생 노릇 하기 어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매년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5월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전국의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에 만족한다고 답한 교사들은 23.6%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조사 결과였던 67.8%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이다. 이러한 교직 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퇴직의 증가로 이어져 또 최근 1년간(2022년 3월~2023년 4월) 퇴직 교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근속연수 5년 미만의 퇴직 교원은 1년 전에 비해 94.4% 증가하였다(Seoul Shinmun, 2023.5.24.).

지금은 교사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어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이는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육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차대 하기에 교사와 교사 직무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없이는 교육 혁신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자 사회적 가치 전달의 수단이므로 교사들의 낮은 자존감과 직업 만족도 그리고 깊어지는 좌절감은 향후 국가 미래의 위기이자 사회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다시 교직에 대한 의미와 가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 현상의 극복을 위해 파머(Parker J. Palmer)의 ‘진리 공동체’(Community of Truth) 개념과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파머가 진리 공동체의 개념을 제안한 이유는 교육 활동 안에서 폐쇄와 공포의 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립되어 가고 있는 교사들이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여 교사의 자의식을 회복하는 데에 있었다. 그의 진리 공동체 이론 안에는 그가 스스로 오랜 시간 교육자로서 경험했던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이 어우러진 고뇌와 철학이 녹아 있다. 그런데 이미 파머의 진리 공동체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2천 년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구현하였다. 곧, 예수는 제자 공동체를 진리 공동체라고 칭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 나라와 신적 진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갈등과 반목, 절망과 희망,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은 이미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의 현실태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파머의 교육 공동체와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태동한 시기와 대상과 목적이 다르지만, 두 공동체가 진리를 추구한다는 점, 진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선택되고 교육방법이 결정되고 학생과의 관계 설정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개인주의, 경쟁주의, 지식 중심 교육을 극복할 또 하나의 이론적 관점과 실천적 제안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에 비추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교육방법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먼저, 파머의 진리 공

동체를 개념화를 하면서 진리 공동체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다음, 예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진리 공동체의 특징적 요소들을 어떻게 발견되고 또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 고찰의 결과가 우리 교육에 오늘날 전달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II. 진리 공동체란 무엇인가?

1. 진리란 무엇인가

1) 철학적 관점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은 시대 안에서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해왔다. 여기서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주장한 진리의 개념을 시대 순으로 간략히 정리해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고대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Plato, B.C 428/7~348/7)은 그의 대표 저작 『파이돈』(Φαίδων)에서 철학의 본래적 목표는 바로 ‘지혜의 획득’이며,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이 일차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할 문제는 바로 ‘영혼은 언제 진리를 파악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진리의 인식은 감각을 이용하지 않고 추론하고 사유할 때 가능해진다고 보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은 어떤 감각도 추론에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사유 능력을 통해서만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오직 순수하게 사유 자체만을 이용하고 사유의 고유 판단기준들에 근거하여 추론할 때 자신의 판단을 진리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Lee, 2011, 58-59).

중세 스콜라 철학을 대표하는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5~1274)는 그의 대표작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1267~1276)에서 진리를 ‘지성과 사물의 일치’(adaequatio intellectus et rei)라고 보았다. 곧 한 인간의 지성이 어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면, 진리를 발견한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요제프 라칭거(Joseph Lazinger, Pope Benedict XVI, 1927~2022)는 아퀴나스가 말하는 진리는 실재의 일부 단편에 불과하며 그 위대성과 통합성 안에 있는 완전한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진리 개념의 확장된 의미를 소개하였다. 라칭거에 의하면, 진리는 하느님 지성 안에서 본래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primo et proprie) 있지만, 인간의 지성 안에서는 본래적으로 동시에 부차적인(proprie quidem sed secundario) 것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던 아퀴나스의 정리를 원용하여 하느님이 ‘최고이며 첫째 진리 자체’(ipsa summa et prima veritas)라는 스콜라 철학의 핵심 명제를 강조하였다(Lazinger, Lee trans., 2012: 243).

근대 철학을 상징하는 학자 중 한 명인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진리란 ‘인식과

인식 대상의 합치'(Übereinstimmung)이며, 인간 인식이 대상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대상이 인식에 따른다고 주장했다.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기존의 전통적인 진리관은 대상이 인식에 앞서 그 자체로 존재하고 성립된 진리이며, 이러한 경우에 인식은 이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를 단순히 모사함에 불과하다. 하지만 칸트에 의하면, 인식의 대상은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물자체(物自體, Ding an sich)가 아니라, 인식에 따라서만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기에, 인식이란 이미 있는 진리의 모사가 아닌 진리 그 자체의 생성에의 참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Park, 2014: 191-193).

20세기 존재론자인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진리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전통적인 진리 이해를 넘어 근원적 진리 자체를 탐구하였다. 그는 이른바 명제나 진술에 입각한 진리 대응설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인 진리 이론이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 언어의 근원적인 체험과 문맥을 간과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하이데거는 일상 가운데서 언제나 드러나 있는 비은폐성(Unverborgenheit)으로서의 진리 곧 진리 사건을 강조하는데, 그는 이를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양의 철학자들은 시간적이고 동적인 삶의 체험을 무시간적이고 정적인 어떤 것으로 실체화했으며 이로 인해 진리는 사실과의 일치를 묻는 명제적 진리로 단순화 내지 추상화되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러한 단순화와 추상화에서 벗어나 원천적인 '삶의 현실성'을 주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이 삶의 현실성을 '존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존재 혹은 존재 사유는 전통적인 진리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의 진리 체험으로 보았다. 곧 하이데거는 진리를 인간 현존재에게 드러나는 존재 자체의 개방성과 현시로 이해하였다(Suh, 2011: 6-8).

2) 신학적 관점

이처럼 진리에 대하여 철학자들은 진리라는 거대한 담론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가늠하게 도와주는 데 기여하였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학적 조명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선, 철학은 합리적 논증과 경험적 증거, 논리적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존재 자체와 진리 자체의 문제와 같은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신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철학은 도덕과 윤리적 지침을 인간 추론과 사회적 규범에 기반을 두기에 절대 선과 목적의 문제를 다룰 때에 신학의 관점이 역시 필요하다.

진리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성경, 곧 복음에서 시작된다. 복음은 예수가 지닌 진리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예수는 진리인 '말씀'에 대해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Mt 7:29; Mk 1:22. 27; Lk 4:32. 36) 있었다. 특히 성부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주장은 이 신적 권위를 강화해 준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Jn 14:24). 예수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Jn 17:17). 그리고 예수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Jn 14,6). 복음서는 예수가 진리라는 점에 대해 그가 예언자를 통해 예언한 것을 성취하고(Mt 1:22; Mt 2:17), 율법과 예언서를 완성(Mt 5:17)할 분으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말과 행적이 진실 되었다는 예수의 진리성에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다(Jn 21:24).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따르면, 진리 개념은 우선 인간의 본성과 연결된다. “인간은 그 본성상 진리를 찾기 마련이며, 인간은 진리를 높이 평가하고 증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67).” 그리고 진리는 인간의 올바른 행실로 드러난다. “인간의 행실과 말이 올바르다는 뜻의 진리는 정직, 성실, 진솔함이라고도 부른다. 진리 또는 진실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으로 참된 것을 보여 주고, 자신의 말로써 참된 것을 드러내며,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을 피하게 하는 덕이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68).” 진리를 간직한 사람은 타인도 진리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진실한 사람은 타인에게 마땅히 알려 주어야 할 것을 알려 준다 …… 진실은 성실과 신중을 내포한다. 정의에 따라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밝혀주어야 한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69).” 또한 그들은 진리를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을 받아들이나(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470).” 이처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진리를 향한 인간의 초월적 본성, 진리를 실천할 인간의 의무, 그리고 진리를 증거 할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신학자 라칭거에 따르면, 인간이 예수를 잘 알면 알수록 진리를 더 잘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진리 자체인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진리를 세상에 보여 준 진리 자체이기 때문이다(Lazinger, Lee trans., 2012: 245). 또 그에 따르면, 인간이 예수와의 친교를 깊게 할수록 성부 하느님과 다른 이들과의 친교 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성부 하느님을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알고 함께 하였으며(Jn 17:25), 다른 사람들도 성부에 대한 인식과 성부와의 친교를 누리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 주었고 앞으로도 알려 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Jn 17:26).” 예수는 진리를 살리는 제자들과 공동체를 형성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진리에 충성하는 자세,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모습, 공동으로 식별하고 판단하는 방법,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교육 방법, 그리고 자신의 인격 자체를 배울 수 있게 함으로써 앞으로 파견되어 진리 공동체를 확산할 사도 양성의 원동력이 되었다(Lazinger, Park trans., 2012: 263-264).

이처럼 철학적 관점을 넘어 신학적 관점으로서 바라본 진리의 개념은, 파머가 교육 공동체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진리는 어느 범주의 차원까지 향하는지 알게 해주는 단초가 된다.

2. 진리 공동체의 성격

1) 왜 교육에서 진리 공동체인가

파머(Parker J. Palmer)가 교육에서 진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무너진 학교 교육 현장과 절망한 교사들의 모습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파머에 따르면, 교사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성실성을 포기할 정도의 깊은 내적 상처를 갖고 있다. 교사들은 학교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주범으로 자주 여론몰이를 당하며, 교사의 사회적 인정과 존경심의 추락, 교직이나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정적 태도 등에 주눅이 들어 있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35-37). 그래서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학생과 교과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며, 이러한 상처로 인해 내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과 자신의 교육을 외부로부터 단절하는 태도를 보인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58-59; 90-92).

파머에 의하면, 이러한 교사들의 내적 두려움과 단절의 태도는 교사들이 소위 ‘지적 객관주의’에 더욱 집착적으로 머무르게 만든다. 지적 객관주의란 지식은 인간 의지나 신념, 감정과 삶의 밖에 있는 것이기에 교육은 어떠한 가치나 신념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교사들은 마음의 상처를 줄이기 위해 학생과 교과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점점 객관주의적 지식 전달에 의존하며 지식 암기 중심의 평가에 몰입하다 보니,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의 능력이 점점 왜소해지고 학생들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며, 결국 지식을 지혜와 진리로 연결하거나 학생들에게 배움을 삶과 연결해 주는 좋은 교육의 이상을 포기함에까지 이른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111).

파머는 좋은 가르침이란 교사들이 공포를 물리치고 가르침과 배움과 삶의 상호 연결성을 회복할 때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좋은 가르침은 교실 내 모든 두려움과 단절을 몰아내고 교사와 학생, 가르침과 배움과 삶의 일체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일체감은 학생들에게 자신뿐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및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연결이 가능함을 알게 해주며, 나아가 자신에게 작용하는 초월적 목적과 신적 은총에 대한 초월성 감각을 키워준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176-177).

파머는 상호 연결성이 활발하게 생산·재생산·확장되는 교실을 ‘진리 공동체’로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진리 공동체로 형성된 교실은 객관적 지식만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 탐구를 위해 복잡한 상호 작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는 풍요로운 장소로 변화한다. 이러한 진리 공동체의 풍요로움은 진리를 탐구하고 따르는 공동체 성격에서 비롯한다(Palmer, Lee trans., 2022: 132-135). 파머에 의하면, 진리 탐구는 중요한 대상 또는 주제(subject)에 대한 열정적이고 질서 있는 대화이며 넓고 고착된 결론을 꾸준히 검증하고 새롭고 창의적 결론을 환영하는 대화 과정이다. 따라서 진리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이는 어떤 주제와 대상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관찰·경청·성찰·발언에 대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Palmer, Lee trans., 2022: 17-18; Palmer, Lee & Lee trans., 2016: 191-197).

당연히 진리를 전하는 좋은 가르침은 좋은 교사에서 비롯한다. 좋은 교사는 지식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먼저 지식을 넘어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 나아가 사회적, 생태적 삶과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끊임없이 탐색해 나가는 사람이다. 좋은 교사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순적 또는 역설적 상황들을 이해하고 이를 균형 있게 식별하며 창조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하도록 도와준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136-137).

이를 종합하면 진리 공동체는 상호연결성을 통하여 인식, 가르침, 배움의 교육적인 임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특히 주제(subject), 교사, 학생 간에 대화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창조적이고 탐구적인 배움이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현장이다(Lim, 2015: 11). 그래서 진리 공동체는 교육에서 단절과 소외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교육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Seo, 2021: 122).

2) 진리 공동체의 요소

주제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연관성이 활발하게 그러나 비판적으로 검토되는 가운데 지식을 넘어 진리와 삶을 향한 역동적인 교육 현장인 파머의 진리 공동체는 상호 연결성, 인격적 지식 그리고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자라는 요소로써 구성된다.

(1) 상호 연결성

진리 공동체는 진리의 상호작용이 실천되는 공간이며, 교육의 핵심적 사명이 창조적 비판 속에 수행되는 공간이다. 진리 공동체는 실재(reality)의 본질과 그 실재를 이해하는 방식을 깊이 탐구하여 진정한 교육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또 진리 공동체는 진리와 실재와 교사와 학습자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끔 인도해 주기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실재는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적 상호작용 안에서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인 차원이 결합된 공동체성을 보여준다(Kim, 2011: 85; Kang, 2020: 394).

따라서 파머에게 진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식은 상호 연결성을 핵심으로 하는 관계론적 인식이다. 이 인식은 자아의 공동체성과 고독성의 성격을 지닌다. 자아의 공동체성이란 인식대상과 연결되어야만 인식대상을 알 수 있음을, 자아의 고독성이란 인식대상을 이성으로 파악하기 전에 전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기의 내적 공간을 개방해야만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2013: 226-228).

그러한 의미에서 진리 공동체는 아는 자(knower)와 아는 자(knower) 사이의 강력한 상호관계를 전제한다. 좋은 가르침은 자유로운 두 주체의 공동체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며, 교육을 통

한 전인적 성장은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자주적 주체들의 관계 안에서 가능해진다(Schiller, Taylor, & Gates, 2004: 169; Chae, 2017: 454). 그래서 교사가 먼저 스스로 진리에 순종하는 공간을 창조하여 배우는 자가 되고, 다음 학생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공간을 창조하게 만들도록 인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 관계에 기초한 진리공동체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Chung, 2011: 182). 이처럼 진리 공동체는 상호 연결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의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Kang, 2022: 120; Lee & Cho, 2015: 60).

(2) 인격적 지식

파머는 오늘날 교육을 지배하는 객관적인 인식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주제 사이를 물리적·정서적으로 단절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철학자인 폴라니(Michael Polanyi, 1891-1976)의 영향을 받아 아무리 여러 데이터 자료들을 통해 증명된 객관적, 과학적 지식도 인식의 주체인 인간의 마음과 그리고 인간이 지닌 암묵적 능력을 통해 통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완전하고 내면화된 지식이 아니며(Chang, 2017: 156), 인간의 암묵적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암묵적 지식(tatic knowledge)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아는 앎보다 더 방대하기에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영역, 특히 대학 교육 안에서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객관주의적 인식론만을 강조하며 이루어지는 교육은 적합하지 않음을 강조한다(Chang, 2017: 138). 그래서 파머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것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그 인식 대상인 지식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곧, 앎은 인격적인 것으로 깊은 공동체로 들어가 관계를 맺고 자 하는 욕구에 의해 활성화된다(Shim, 2018: 123-125).

파머가 강조하는 인격적 지식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에서 교육내용과 학습자간의 인격적 매개가 일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인격적 지식은 아무런 매개 없이 무의미하게 정보가 전달되는 무기력한 지식교육이 아닌, 학습자와 지식이 유의미하게 매개되어 학습자의 인격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지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파머에게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진리를 따르는 삶이자 목적지를 향한 여정이다(Chung, 2011: 171, 181; Sohn, 2019: 107-108). 또 인격적 지식에서는 인식주체와 지식간의 친밀성을 강조한다. 인식주체가 전인격을 다하여 지식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리의 소리를 듣고 수용하고 따르는 참된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Seo, 2021: 125-127; Kim, 2013, 224).

(3)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자

이 요소는 좋은 교육자가 행하는 좋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객관주의 인식론을 중심으로 한 교실 현장에서 교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하는 전문가일 뿐이다. 그렇기에 교사는 자신의 주관성을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객관성 혹은 자신이 배운 내용들을 전달하거나 보고하는 방식으로 가르친다. 반면 진리 공동체에서 교사는 학생이 내면의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소명을 알아낼 수 있도록 산과 역할을 하며, 학생이 실재와의 대화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지식의 청중이나 수동적 수용자 이상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Kim, 2013: 229-231).

파머는 훌륭한 가르침이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그는 정체성을 교사의 유전정보, 성장한 문화, 좋고 나쁜 일, 사랑과 고통이 모여 결합되고 정화되는 자아의 ‘연결축’(an evolving nexus)으로, 성실성은 정체성을 바탕으로 교사의 자아가 유지되고 생명력을 얻도록 온전히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52-53).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르치는 주제와의 살아 있는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공동체를 맺도록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이렇게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과 주제 사이에 상호 연결성이 확보되어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진리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Shim, 2018: 118,125).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사와 학습자가 실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닌 상호 주관적이고 역동적이며 공동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과도 같다(Kim, 2011: 82).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사랑하고 수용하며 겸손과 헌신, 배려와 존중이 어우러지는 관계가 요구되는데(Shim, 2018: 134), 진리 공동체에 필요한 두 가지 사랑, 곧 ‘배움 자체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가 배우는 자들에 베푸는 사랑’이 필요하다. 배움 자체에 대한 사랑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얻는 작업에서 느끼는 온전한 기쁨이며, 공동체가 배우는 자들에 베푸는 사랑은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베푸는 사랑이다. 이처럼 진리 공동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찾는 일을 함께 하는 공동체이다(Yoo, 2007: 101-103).

3. 진리 공동체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파커 파머의 진리 공동체는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학교가 그야말로 진리의 집인 교육 공동체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리 공동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에서 ‘주제 중심, 열린 대화 및 갈등 환영,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 등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주제 중심

진리 공동체는 주제 중심(subject centered)의 교육활동을 중요시 한다. 진리 공동체 안에 늘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점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이 대상에 집중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객관주의 인식론에 기초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은 상호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개인주의적이고 경쟁주의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만, 주제 중심이 되면 상호 연결성을 지닌 공동체가 된다(Kim, 2013, 228-230).

주제는 진리 공동체의 핵심 연결축의 역할을 하여 교사와 학생을 자신에게로 모은다. 진리 공동체 한가운데에 주제가 있기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견을 나누게 분위기가 되기에 교사와 학생은 결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수 없다. 공동체 중심에 있는 주제는 교사와 학생 어느 한 편에 주도권이 가도록 놔두지 않고 모두가 주제에 대해 집중하고 파고들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파머는 주제를 가리켜 ‘위대한 사물’(great things)라고 명명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17-218).

이에 따라 진리 공동체 안에서는 ‘위대한 사물’인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복잡한 의사소통 작용이 일어난다. 관찰과 해석을 공유하고 또한 시정하며 보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감과 합의가 도출된다. 이러한 합의의 과정은 직선적이거나 위계적이지 않으며, 순환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역동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이 발생한다(Lee & Cho, 2014: 58-59). 그리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얻게 되는 지식, 곧 주제를 중심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일종의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 안에서 주제와 교사 그리고 학생 간 상호 연결 과정으로 얻는 지식은 다분히 인격적이며 관계적이며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다(Sohn, 2019: 108).

2) 갈등 환영

진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교사가 어떤 주제를 자신 있게 진술했는데 학생이 교사의 가르침에서 문제점이나 모순점을 지적하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그래서 진리 공동체에는 갈등이 늘 존재하는데, 파머는 이를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은 공개적으로 서로의 견해를 검증하는 역동적인 장으로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인식을 더욱 넓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18-219, 225).

이처럼 진리 공동체가 교육 안에서 진리를 환영하는 열린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머는 환대와 역설의 가르침을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환대는 서로의 생각을 개방적으로 주의 깊게 받아들임으로서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것으로, 또 역설의 가르침은 대립되는 의견들 중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의견 모두를 연결하는 가르침을 말한다. 곧 열린 공간은 대립되는 의견의 상황 안에서도 분리하지 않고 창조적인 긴장 속에서 인내하며 양쪽을 상호연결 할 때 만들어진다(Seo, 2021: 128-129).

또 파머는 진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통 기반을 찾음으로서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필요한 질문의 원칙과 합의의 원칙을 제안한다. 우선 진정한 배움은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는 실재에 담긴 숨겨진 온전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존 질서에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자체에 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의 인격적인 만남에 목적을 둔 열린 질문은 공동체 구성원 간에 영적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으

로 공동체의 결정 과정은 다수결보다는 합의에 따른다. 다수결 방식은 간혹 효율적일 수 있으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진리 공동체는 의사 결정시 합의의 원칙에 따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임으로서 배움을 보다 완전하게 만든다. 훌륭한 합의는 갈등이 갖는 역할에 주목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여 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Kim, 2013: 233-234; Shim, 2018: 117-118; Nam & Kim, 2020: 152).

3) 공동 경험 추구

진리 공동체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을 장려함으로써 위력을 발휘한다. 파머는 경험에 대한 공동적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으로 추구하는 주제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위대한 사물’이 된다고 말한다. 곧 공동 학습은 리얼리티를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신의 제한된 시야로만 모든 것을 파악하는 일은 피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본 것들을 서로 대조하여 교정할 수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리얼리티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진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경험은 하나의 지혜보다 언제나 뛰어난 공동 지혜를 가능하게 해준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28).

이는 파머의 공동체적 인식론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공동체적 인식론 안에서 인식 주체는 대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상에게 영향을 받는 살아 있는 상호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듯이 (Shim, 2018: 118), 진리 공동체 안에 속한 이들은 ‘위대한 사물’과 관계를 맺고 그것이 인격적으로 말을 하도록 허용한다. 또 ‘위대한 사물’ 역시 이들을 발견하게끔 만든다. 그래서 진리 공동체 안에서의 학습이란 구성원들이 함께 학습이라는 공동의 경험을 통하여 인식 대상으로 들어가고, 또한 그 대상이 자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Seo, 2021: 127).

4) 개방성 추구

파머에게 가르침이란 각종 자료나 교사의 생각으로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제에 대하여 더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어 스스로 사고와 성찰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방성의 추구는 학생들이 그 학문 분야나 주제와 관련한 진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적은 것으로 많은 내용을 가르칠 수 있고 의미 있게 형성된 정보들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23-225, 233).

파머는 개방성의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필수적으로 침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파머에 따르면, 말은 교육에서 대단히 귀중한 도구이지만 오히려 공동체

의 관계가 깨지고 진리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기에 교실 내 침묵의 규칙을 세우면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내향적인 학습자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 있다. 침묵은 학습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침묵하는 동안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이 다루는 주제에 귀 기울여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진리의 공간을 창조한다(Palmer, Lee trans., 2022: 157-158; Lim, 2014: 235-236).

5) 긍정적 변화 추구

진리 공동체의 추구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주제 간의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고 교사의 말에 아닌 학생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좋은 배움의 성과를 낸다. 나아가 교육 전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긍정적인 변화가 촉발한다. 그래서 파머는 진리 공동체적 교육 방법이 긴급한 교육적인 필요에 실제적으로 반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한다(Palmer, Lee & Lee trans., 2016: 234, 239, 253).

곧, 진리 공동체는 인격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두어 마음으로 지성을 사용할 수 있고 열린 생각과 마음을 형성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낮은 주제들도 포용하고 환대하게 하며, 상호 연결성을 회복시킨다(Shim, 2018: 142-143). 이로써 학생들은 건전한 시민으로서 겸손함을 겸비한 지성인,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며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존엄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Kim, 2013: 236).

이처럼 학생은 진리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불어 인격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Lee, 2015: 34).

III. 진리 공동체의 관점에서 본 예수의 교육

지금까지 온전한 인간 교육을 지향하는 진리 공동체를 개념화하기 위해 진리의 신학적, 철학적 정의를 고찰하였고 상호 연결성, 인격적 지식, 진리의 공간을 창조하는 교육자라는 진리 공동체의 세 구성 요소를 살펴본 후, 주제 중심, 열린 대화 및 갈등 환경,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라는 진리 공동체의 다섯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예수의 면모와 진리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고찰한 후 예수의 교육방법에 대해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교육자 예수

과연 예수를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가 교육자였다는 증거는 복음서에서 충분히 발견

된다. 복음서는 항상 가르치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였다(Mt 12:1-8; 22:15-22). ‘didastein’(가르치다) 동사는 마태오 복음에 9번, 마르코 복음과 루카 복음에 15번씩, 요한 복음에 8번 나온다. 또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 또는 랍비라고 불렀는데, 랍비는 공관 복음에 35번, 요한 복음에 7번 나타난다(Choi, 2007: 67). 하지만 복음서는 예수가 교육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하고자 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곧 복음서는 예수가 단순한 선생, 스승, 교육자 이상의 존재로서 주님이자 구원자, 나아가 진리 자체임을 강조한다(Choi, 2007: 68). 특별한 교육자, 교육자 이상의 교육자인 예수의 면모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가르침의 주제이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가르쳤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느님 나라의 주인인 메시아(사람의 아들)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될 사람들의 태도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예수에 의하면, 하느님 나라는 선택된 이들, 사제와 거룩한 이들의 왕국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직접 통하는 왕국인데, 이는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를 차지한 이들이 누리는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장사꾼의 기쁨(Mt 13:44-46),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Lk 15:3-7)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Lk 15:8-10) 등이 그 예이다. 예수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통해 기쁨을 누리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다(Kim, 2016: 149).

둘째, 예수의 교육원리이다.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사람들의 전인적 변화를 위해 예수는 독특한 교육적 원리를 적용하였는데 독창성, 개별성, 자율성, 케노시스(κενωση), 공동체 등이 그것이다(Choi, 2007: 72). 복음서 안에서 이 원리들의 근거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독창성은 기존 율법의 재해석이나 폐기하는 것에서(Lk 13:29, 14:15), 개별성은 그의 가르침이 언제나 사람과의 개별적 만남 속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것에서(Jn 4:1, 8:1), 자율성은 피교육자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에서(Jn 4:1-42), 케노시스 원리는 늘 어린이, 여성, 병자 등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 먼저 돌보는 것에서(Mt 18:1-5; Lk 18:2-5), 그리고 끝으로 공동체 원리는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에서(Jn 15:15) 발견할 수 있다(Lee, 2005: 238).

셋째, 교육자 예수가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공생활 중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친 교육 방법은 ‘자신을 나타내기, 공동체를 작은 사회로 경영하기,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하기, 질문으로 자각시키기, 학생의 진짜 문제를 파악하고 최적의 때를 기다리기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하였다(Nam & Kim, 2022: 104).

넷째, 교육자 예수의 인격적 권위이다.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나타난 인격적 권위는 ‘관계 형성, 언행일치(모범), 사제동행(공감과 공유), 개별적 인도, 섬김과 희생, 인격적 지식과 논리’ 등

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말과 행동으로 직접 그들에게 가르치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모든 제자 각각의 특수성을 헤아려 이끌어 주었고, 몸과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하였으며, 살아있는 지식과 논리로 대했음을 의미한다(Shim, 2007: 62). 그리고 이러한 권위는 자신이 지닌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실성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McCoy, 2016: 4-5).

딜론(J. Dillon)은 그의 저서 *Jesus as a Teacher*에서 예수가 교육했던 모습에 관하여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을 세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우선, 예수가 지닌 세심하고 지적이면서도 낙관적이고 용기 있는 인격은 훌륭한 교사로서의 바탕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예수는 교육할 때 다양한 방법과 원리들을 적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Jn 4:5-41)을 고찰한 결과 열 가지 이상의 교육학적 원리를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교육을 통한 변화를 이룬 교육자였는데, 그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놀랍게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다혈질적인 베드로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폭력에 의지하던 열혈당원 시몬을 순교의 복음 선포자로 변화시켰다(Dillon, 1995: 178-185).

2. 진리의 제자 공동체

예수는 공생활을 시작하며 제자들을 모았다. 그의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 열두 명은 사도들이었다. 열두 사도 외에 제자 중에는 갈릴래아 남자들과 여자들로 있었다(Gnilka, Lee trans., 2002: 246, 253-254). 여기서 말하는 제자 공동체는 열두 사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 사도들이 지닌 권위는 예수가 이들을 직접 사도로 불렀고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직접 증인들이며, 복음서와 다른 성경을 직접 기록하였고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에 근거한다(Gnilka, Lee trans., 2002: 254).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소유한 자기 것들을 포기하였다. 예를 들어, 마르코 복음에서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은 아버지 제베대오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점을 매우 강조한다(Mk 1:20). 제자들의 포기 정신은 공동체 생활로 이어진다. 그들은 스승처럼 양식도 돈도 동냥자루도 없이 그리고 맨발에다 지팡이도 없이 온 고장을 돌아다녔다. 이런 제자들의 생활 방식은 향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윤리로 연결되면서 다른 새로운 질서에 입각한 대조 사회로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전형이 되었다(Gnilka, Lee trans., 2002: 233).

둘째, 제자 공동체는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이루어졌다. 열두 제자 집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이들은 갈릴래아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어부들이었으며 시몬과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다. 한편 시몬과 유다는 열혈당원 출신이었는데, 이들은 모세 율법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민족주의적 저항단체처럼 로마제국에 대항하여 무장 투쟁에 가담하던

이들이었다. 반대로 마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팔레스티나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다(Lazinger, Park trans., 2012: 271).

셋째, 제자 공동체는 스승 예수를 따라 하느님 나라를 증거 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다. 제자들은 예수의 신앙과 가르침과 삶이 하느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확신하였다. 그들은 스승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였다. 예수의 모범은 제자들이 세상적 논리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깊은 믿음을 갖고 공동체를 유지할 힘을 주었다(Gnilka, Lee trans., 2002: 241).

3. 진리 공동체를 위한 예수의 교육방법

1) 주제 중심

주제 중심의 진리 공동체는 상호 연결성을 바탕으로 ‘위대한 사물’이라는 주제를 중심에 두고 함께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순환적이고 역동적인 교감과 합의가 일어나는 현장이자 배움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곳의 중심 주제는 단연코 하느님 나라(Βασιλεία του Θεού)였다. 복음서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다른 어떤 주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언급되었다. 복음서에서 언급된 횟수는 접근법에 따라 106회, 72회, 113회 등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복음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는 명백하다(Choi, 2007: 70). 앞에서 언급했듯,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에 참여한 이들이 맛볼 수 있는 실체적 현실로서 제시하였다(Lazinger, Park trans., 2012: 91-95, 270). 하느님 나라는 지도상으로 어디엔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부터 발원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추상적이고 초월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가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펼쳐 보인 실체적 현실이라 할 수 있다(Lazinger, Park trans., 2012: 91-95, 270).

그런데 예수는 단순히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유와 기적,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사도들을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초대하였다. 주제에 대한 이러한 관계적 참여는 사도들 사이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더 깊고 개인적인 이해를 가져왔다. 그렇기에 가진 것 없이 다른 이의 도움에 기대어 사는 제자들의 모습은 머리 기댔 곳조차 없이 지낸 예수의 모습이나 하느님 나라의 모습에 대한 설명과 같았다. 이는 소유와 이익에 의존하는 기존 사회 질서와 반대되는 새로운 사회 질서이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주제로 하여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실존적 응답을 요구하였다(Gnilka, Lee trans., 2002: 233). 예수와 제자 공동체의 중심에 놓인 하느님 나라는 당장의 눈에 명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에게 위대한 주제가 되었다.

2) 갈등 환영

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진리 공동체에서는 여러 갈등도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진리 공동체에서는 다양한 갈등의 상황들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으로서 또 환대와 역설을 가르치는 공간으로서 기쁘게 수용한다.

이를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에서 살펴보자면, 우선, 제자들의 나이, 고향, 직업 유형이 달랐고 구원관도 달랐으며 로마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항 하는 방식도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신비스런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자들은 서로 긴장을 겪으며 많은 갈등을 하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Lazinger, Park trans., 2012: 272-273).

예를 들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찾아와 두 아들을 스승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옆드려 청함으로써 다른 열 제자들이 불쾌하게 여겼다(Mt 20:20-24). 또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심한 논쟁이 일어났다(Lk 9:46). 예수의 말을 더 이상 듣기 거슬린다고 하여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완전히 떠났다(Jn 6:66). 제자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미리 알려줄 때 마다 그들 뒤따르길 두려워하였다(Mk 9:32, 10:32). 베드로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예수를 반대하였고(Mk 6:23) 심문을 받으며 고초에 시달리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하였다(Mk 14:66-72).

예수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교육의 필수적 요소라고 보았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피해서도 또 피할 수도 없는 자연적인 모습이다. 예수는 갈등을 제자 교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제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혼란과 불편함은 더 깊은 이해와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예수는 제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고 건설적으로 처리할 때 제자들이 더 성숙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한 논쟁이 생겼을 때, 예수는 이 갈등을 이용하여 섬기는 리더십과 지도자의 겸손에 대해 가르쳤다(Lk 22:24-27). 야고보와 요한이 명예로운 자리를 요청했을 때 권력과 지위에 대한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즉 높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깨닫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Mt 19:28-27).

예수에게 있어, 제자 공동체는 갈등을 환영하면서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진리 공동체이다. 그는 분열과 분쟁을 방지하거나 갈등의 표면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느님 나라의 시각으로 상황을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며 공감과 연민, 인내와 기다림, 사랑과 용서가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임을 알려주었다.

3) 공동 경험 추구

진정한 교육은 삶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기에 생활 속에서 모범을 통해 이뤄진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삶과 삶과 신앙의 통합을 지향하는 공동체였다. 예수는 구원 사명을 제자 공동체

형성으로 시작하여 교회 공동체 형성으로 마무리하였다. 예수가 제자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Mk 3:14-15).” 공동체는 제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명을 수행하며 권한 사용에 대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장소였다(Choi, 2007: 77).

예수는 제자들이 공동체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하였다. 그는 사랑, 용서, 겸손, 봉사, 하느님 나라 등 주제를 제자들에게 알려줄 때 개인의 제한된 시각으로 보거나 객관적인 파악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대조하여 서로의 관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자 공동체는 공동 학습을 통해 집단 지성이 진리를 더 잘 파악하고 신적 지혜를 더 잘 얻을 수 있었다.

제자들의 공동체 학습의 핵심은 ‘모범을 통한’ 교육이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이 먹고 자고 말하고 일하는 방식,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방식, 하느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식별하는 방식 등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고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위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적, 외적 갈등과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스승의 모범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모범을 통해 스승을 닮고자 하는 동일화(identification)의 열망을 가질 수 있었다(Choi, 2007: 77).

공동 식사는 제자 공동체에게 단순히 함께 음식을 먹는 의미를 넘어서었다. 예수에게 공동 식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신앙 공동체의 전형이며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며 예배의 자리였다. 또 예수는 식사를 통해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나눌 기회로 삼았다. 예를 들어 루카 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는 최후의 만찬이라 일컬어지는 식사 시간에 많은 것을 가르쳤는데 긴 식사는 편안하고 친밀한 나눔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예수는 사회적, 종교적 장벽을 없애고자 세리, 죄인 등 사회적 소외층과 식사를 함께 하였고(Mk 2:13-17) 또 병자와 소외된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로 잔치의 비유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Mt 22:1-10; Lk 14:15-24). 공동 식사의 절정은 최후의 만찬(Lk 22:14-27)이다. 스승과의 이 마지막 식사에 받은 감동적인 공동 경험은 초대 교회의 성찬례(Eucharist) 예식으로 그리고 오늘날 성체성사 곧 미사(missa)로 이어졌다.

4) 개방성 추구

진리 공동체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며, 개방성은 언어적인 것을 교환하는 것 뿐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포함한다. 언어와 침묵이 공존하는 개방성은 다루는 주제와 교과목, 동료와 교사, 배움과 가르침의 연결성의 성찰하고 현실과 초월, 인식과 신비의 전체성을 관상하게 만든다. 이러한 개방성을 특징으로 진리 공동체는 학생들이 진리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타인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강조되었다. 당시 편견과 회피의 대상이었던 세리, 창녀, 병자들을 항상 우선적 교육적 대상이자 소재였으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Mt 28:19) 복음 선포의 대상이자 주체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예수의 제자 공동체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전통적(구약적) 개념을 재해석하여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 안에 현실재로 제시하며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율법에 명시된 식탁 교제를 죄인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하느님 나라의 중요한 이미지로 사용하였다(Chung, 2005: 133).

예수의 풍부한 비유 사용은 이러한 타인과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을 잘 드러내준다. 비유는 희랍어 파라볼레(parabole)로 자연이나 일상에서 이끌어낸 은유나 직유로서 사람들이 익숙하고 관습적인 것들의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상식과 기존 질서에 의문을 갖게 하여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Chung, 2005: 104-105). 비유 안에는 잠재력이 있고 또 선택된 상징을 뛰어넘게 하는 속성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초대하여 이런 속성의 잠재력에 자신을 맡기고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평에서 벗어나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 곧, 이러한 비유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교육은 제자 공동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사고의 확장을 촉진한다(Lazinger, Park trans., 2012: 292-293). 예수가 많은 비유를 사용한 것은 교육 대상인 하층민들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향한 개방성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 예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Jn 15:15).” 참된 교육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 교육적 관계를 넘어 우정의 관계에 들어설 때 가능하다. 그래서 제자를 교육하는 예수의 방식은 친근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Mt 16:15)는 예수의 물음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대답을 먼저 끌어낸다. 예수의 가르침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배우는 자의 능동적인 이해, 의지, 노력을 동반한다. 예수 교육의 개방성은 교사와 학생의 우정 넘치는 관계 그리고 가르침과 배움의 상호호환을 통해 진리 공동체를 창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다(Choi, 2007: 77).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 공동체의 개방성은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을 포함한다. 진리 공동체는 항상 초월적 진리를 향해 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항상 알기 위해 공부하고 기도에 전념한다. 예수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고 일용한 양식을 얻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Mt 6:9-13), 아버지가 원하는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Mt 26:36-46), 다른 이를 용서하도록(Lk 23:34) 은총을 구했다(Choi, 2007: 70). 그리고 예수는 중요한 결정할 때 홀로 군중에서 떨어져 밤새워 긴 시간을 침묵의 기도를 바쳤다. 침묵은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의 극치이다. 침묵은 하느님에 대한 개방적 환경을 만들어 주

고 내면의 두려움, 불확실성, 희망을 모두 내어놓은 시간이며 언어로써 표현했던 것을 성찰하고 숙성하는 시간이다. 침묵은 완전한 교육에서 지식과 감정을 넘어 초월과 영적 측면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개방성이 왜 침묵을 포함하는 개념인지 잘 알려준다.

5) 긍정적 변화의 추구

진리 공동체는 교육과 공동체를 연결함으로써 교육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진리 공동체는 교육 환경과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혁적인 힘을 지닌다.

우선, 예수의 제자 공동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습 공동체였다. 이러한 개방성과 신뢰 가득한 교육 환경은 제자들이 지닌 의심, 두려움, 희망을 표현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공동 경험을 증대시키고 함께 진리로 나아가게 하였다. 논쟁과 갈등은 이 공동체 안에서 승패의 기로가 아니라 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갈등의 지점에 대해 더 성찰하고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리 공동체로서 제자 공동체 구성원들은 위계적이지 않고 서로를 진리를 향한 여정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며 권위와 책임을 공유하였다.

둘째, 예수는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을 진리, 즉 하느님의 말씀과 뜻의 실현에 집중하도록 교육하였다. 제자 공동체는 객관적 사실의 내면에 감추어 있는 온전함과 전체성을 경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진리를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적 공동체로 변화하였다. 부활한 스승을 통해 진리를 접한 제자들은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Mt 26:56; Jn 20:19)에서 벗어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 순교를 기꺼이 감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진리 공동체의 원리는 교육 환경의 변화나 개인적 변화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예수를 통해 변화된 사도들은 초대 그리스도교의 핵심 인자가 되어 복음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해 등 예수가 강조했던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증거 하였다. 예수는 제자들이 진리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신뢰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훗날 세상의 변화를 촉진할 그리스도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Lazinger, Park trans., 2012: 290-292).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파머의 진리 공동체 개념에 비추어 예수의 공동체 교육을 다섯 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다. 요약하자면, 예수는 주제 중심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핵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지 않고 비유와 기적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위대한 사물(great things)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공유하도록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예수는

상호작용이 활발한 교육 상황에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창조적인 교육의 기회로 여기고 환영하였다. 제자들에게 모순, 분열, 절망적 상황 안에 숨겨진 역설, 일치, 희망을 발견하는 시선을 갖고 갈라진 분절 속에서 온전함을 발견하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갈등 환영의 분위기는 제자 공동체 안에 공동체적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줄 수 있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다른 견해를 서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며, 말이 아니라 모범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였다. 공동 경험의 중요성은 서로에 대한 개방성을 전제한다. 제자 공동체가 지닌 개방성은 회피하고 싶거나 낮은 존재와 상황과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포함하며, 초월적 진리 곧 하느님을 향한 개방성도 포함한다. 진리 공동체가 맺는 결과물은 교육과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예수는 제자 공동체가 서로 존중받고 신뢰와 희망이 넘치는 교육 공간이 되었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의 두려움을 없애고 용감한 복음의 사도로 변했으며,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랑, 용서, 화해 같은 스승의 가치를 증거하였다.

제자 공동체가 진리 공동체로 변화하길 원했던 예수의 교육방법은 오늘날 우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오늘날 교육은 분절되고 파편화된 학문적 교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 단위별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융합학문과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우리 사회는 현대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문적 상상력과 과학적 사고력을 겸비한 창의융합 인재를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은 객관적 지식의 단편적 습득이 아니라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다시 진리와 삶의 지혜로 연결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성찰 능력과 비판 능력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무리하면서 이 논문에서 도출한 파머와 예수의 진리 공동체의 주제 중심, 갈등 환영, 공동 경험 추구, 개방성 추구, 긍정적 변화 추구라는 다섯 요소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를 바란다.

Reference

- Cha, M. J., Kim, C. M., Kwon, H. J., Cho, H. D., Lee, J. Y., Jung, S. J., Park, E. A., Moon, Y., Wang, M., Seo, J. W., Ji, J. M., Jang, M., Park, M. S., Lee, Y. D., Kim, G. D., Lee, R., Park, H. S., Yoo, S. J., Kim, J. J., & Park, I. W. (2010). A development of learner participation scale in instruc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1), 195-219.
- Chae, H. S. (2017). Spiritual Education of Parker J. Palmer. *Theology and praxis*, 55, 449-478.

- Chang, J. S. (2017). The Significance of Subject Matter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Michael Polanyi's Epistemology.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9(3), 155-171.
- Choi, J. G. (2007). Jesus' Educational Principles and Their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5, 65-84.
- Chung, S. W. *Jesus, History or Myth?*. 정승우 옮김 (2005). 예수, 역사인가 신화인가. 서울: 책세상.
- Chung, Y. K. (2011). Palmer's Concept of Spirituality and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Ideas*, 25(3), 161-187.
- Dillon, J. T. (1995). *Jesus as a Teacher : A Multidisciplinary Case Study*. Oregon: Wipe and Stock Publishers.
- Gnilka, J. *Jesus von Nazaret : Botschaft und Geschichte*. 정한교 옮김 (2002). 나자렛 예수: 말씀과 역사. 칠곡군: 분도출판사.
- Joannes Paulus II.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옮김 (2008). 가톨릭 교회 교리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
- Kang, K. L. (202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er Ident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From the Perspective of Parker Palmer's Identity Theor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2), 389-413.
- Kang, K. L. (2022). Exploring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of Pre-service Teachers from the Community's Perspective: Focusing on Parker Palmer's Community Theor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8(1), 117-148.
- Kim, P. I. (2016). The Teaching of Jesus. *Theological Thought*, 175, 149-163.
- Kim, S. S. (2013). Educational Applications of Parker J. Palmer's Truth Community.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37, 201-241.
- Kim, J. J. (2011). The Backgrounds of Parker J. Palmer's Idea in his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9, 65-98.
-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s (2023.5.15.). Announcement of the Survey Results on Teacher Recognition in Commemoration of the 42nd Teachers' Day. Retrieved 2023.6.7. from <https://url.kr/r5lvoe>
- Lazinger, J. *Jesus von Nazareth 1*. 박상래 옮김 (2012). 나자렛 예수: 예수의 세례부터 거룩한 변모까지. 서울: 바오로딸.
- Lazinger, J. *Jesus von Nazareth 2*. 이진수 옮김 (2012). 나자렛 예수: 예루살렘 입성에서 부활까지. 서울: 바오로딸.
- Lee, H. M. (2015). Educational Philosophy of Parker J. Palmer. *Proceedings of the Summer*

-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Ideas*, 29-44.
- Lee, H. N. (2005). The Educational Principles of Jesus based on Matthew 25: 14-30.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2, 221-254.
- Lee, S. I. (2011). Platons Hypothesis der Ideen — Zur Uebersetzung und Interpretation. *Journal of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54, 57-92.
- Lee, S. S. & Cho, M. K. (2014). A Study on the Role of Adult Educators in Parker J. Palmer's 『The Courage to Teach』. *Korean Education Inquiry*, 32(1), 49-70.
- Lee, Y. Y. (2019). Effect of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Acculturative Stress: Focused on Moder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13(1), 27-48.
- Lim, Y. T. (2014). Spirituality of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Community: Parker Palmer's Method.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40, 219-244.
- McCoy, J. (2016). The Teaching Methods of Jesus. *The Journal of Biblical Foundations of Faith and Learning*, 1(1), Article 9.; Available at: <https://knowledge.e.southern.edu/jbfl/vol1/iss1/9>
- Nam, A. Y. & Lee, J. Min (2020).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ome-type Wee Center: Focusing on the Parker Palmer's the Community of Truth.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33(1), 143-173.
- Nam, S. I. & Kim, B. C. (2022). A Exploratory Study of the Educational View of Jesu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2(14), 89-112.
- Palmer, P. *The Courage to Teach*. 이종인 · 이은영 옮김 (2016).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 문화.
- Palmer, P. *To Known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이종태 옮김 (2022).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IVP.
- Park, S. B. (2014). The Structure of Kant's Truth Theory. *Pan-Korean Philosophy*, 75, 189-212.
- Schiller, S., Taylor, M. & Gates, P. (2004). Teacher Evaluation Within a Community of Truth: Testing the Ideas of Parker Palmer. *Innovative Higher Education*, 28(3), 163-186.
- Seo, M. K. (2021).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oughts of Christian Education Between Comenius and Palmer: Focusing on A Movement of Faith in the Reformed Life Theology. *Life and Word*, 29(1), 107-152.
- Seoul Shinmun (2023.5.24.). Young teachers leaving the denomination doubled in a year. Retrieved 2023.11.14.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524500142&wlog_tag3=naver.
- Shim, S. H. (2007). The Inter-fostering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 Educational Philosophy of Confucius and Jesus.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 113-138.
- Shim, S. H. (2010). A Study on Personal Authority of Teachers through the Life and Teaching of Jesus Chris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6(3), 59-86.
- Shim, Y. H. (2018). A Study on the Recovery of “Interconnection” among Educational Community Members Based on Palmer’s Community Theory Young. *Theology and Society*, 32(4), 111-148.
- Sohn, J. W. (2019). A Comparative Study of Understanding about Human Being and Knowledge in Søren Kierkegaard and Parker Palme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62, 89-124.
- Suh, D. U. (2011). Der Wahrheitsbegriff bei K. Nishida und M. Heidegger. *Korean Society For Phenomenology*, 48, 1-28.
- Yoo, M. B. (2007). An Examination of Educational Thoughts of Parker Palme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6, 89-108.
- 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2 교육여론조사.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3). 2022 Education Public Opinion Survey.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5). 성경.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Translated in English)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2005). *The Bible*. Seoul: Catholic Conference of Korea.